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내 주 하나님 넓고(408) 오 놀라운 구세주(44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33	다 같 이
기 도	Prayer	정순영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마태복음 25:14-30	인 도 자
설 교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나 공평한 인생 1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42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명정자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권사**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2월 11일 제28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흔히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받은 것으로 따진다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싶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못하여 주인에게 쫓겨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폭군으로, 그리고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헤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절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한 달란트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한 달란트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왜 주인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다 똑같이 다섯 달란트를 주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다면 나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주인은 사람을 차별해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왜 자신은 한 달란트 밖에 받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나누어준 달란트는 어찌보면 분명 차별대우이고 불공평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능에 맞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나누어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것에 집중하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공평해 보이는 삶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불공평이 있는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평함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많은 것을 남겼다고 종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맡아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임시로 맡은 것입니다. 잠깐 동안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달란트나 한 달란트나 사실은 공평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주인이 잠깐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유로운 기회를 공평하게 준 것입니다. 왜 주인은 종들에게 자유로운 기회를 주었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을 다하는 충성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한 충성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업적과 성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또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칭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이 똑같습니다. **21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최고의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 인간의 불공평한 생각일 뿐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들의 것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의 귀중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결국에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리고 영원한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25: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마25: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다음 주일예배에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성찬예식은 2월 21일(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기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3. 1월 적립된 선교구제비는 $947.00입니다. 바르고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455.00	
감사헌금:	$210.00	
주일헌금:	$42.00	
특별헌금:	$10.00	**합 계: $717.00**

중보기도 제목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선원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선원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